

시험 OMR카드에 마킹 실수하는 아이, 해법이 없을까요?

중2아들은 시험 답안지 OMR카드에 마킹을 실수해 감점을 자주 받아요. 답을 두 개 찾아야 하는 문제에서는 시험지에 두 개를 다 체크하고도 정작 OMR카드에는 한 개만 마킹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시험이 더 어려워지고 시간에 쫓겨 답을 밀려 쓰는 아이도 있는데, 그렇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OMR카드 마킹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궁금해요. _ 이남희(42·서울 은평구 녹번동)

시간 압박의 긴장감을 낮추고 5문제씩 끊어 정답 번호를 비교·확인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OMR카드를 출력해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킹 실수를 줄이려면 시험 볼 때 긴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 긴장하게 되고 마음이 조급해져 실수하게 되니까요. 경기 송우고 최학모 교사는 “마킹 실수가 잦은 학생이라면 우선 시험의 난도에 따라 제한 시간을 거의 소진하는 지, 아니면 시간 여유가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한 시간을 다 쓰는 경우라면 한 번에 몰아 마킹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한 문제를 풀고 바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답을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단 마킹을 할 땐 한 문제 한 문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최 교사는 “시간 여유가 있다면 문제를 풀면서 시험지에 정답을 표시하고 동시에 문제 옆에 숫자로 번호까지 적는 게 좋다. 문제를 한 번 다 풀고 검토하면서 내 답이 맞는지 확인해 확신이 들면 그때 문제 옆에 쓴 숫자를 OMR카드에 옮겨 적는 방법을 추천한다”고 전합니다.

마킹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땐 시험지에 표시한 정답 번호를 5문제 단위로 끊어 OMR카드의 숫자와 비교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1~5번 문항의 답은 1, 3, 2, 2, 4 이런 식으로 5문제 단위로 답을 되뇌면서 OMR카드와 비교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MORE TIP

OMR카드의 'OMR'은 '광학 표시 인식(Optical Mark Recognition, Optical Mark Reading)'의 줄임말입니다. OMR카드의 객관식 답안 숫자에 검은색 사인펜을 칠하고 이 카드를 정답 값이 미리 입력된 스캐너에 넣으면 사인펜을 칠하지 않은 자리는 빛이 반사돼 돌아오고, 칠한 자리는 빛이 흡수되죠. 이 데이터가 정답 값과 일치하는지를 판독해 채점이 이뤄지는 원리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프린트가 가능한 OMR카드 파일도 있는데, 이를 활용해 마킹 연습을 하면 실수를 줄이고 시간 안배 훈련을 겸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과목별 기준 단위와 운영 단위의 차이가 뭔가요?

예비 고1 학부모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교 선택에 고민이 많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고 있는데요. 같은 과목이라도 학교별 기준 단위와 운영 단위가 다르네요. 기준 단위와 운영 단위가 무슨 의미인지, 학교별로 다르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_ 장선희(47·경기 성남시 수내동)

세부 교과목에 대해 교육부가 적정하다고 판단·편성한 수업 시간이 기준 단위이고, 이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수업 시간이 운영 단위입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한 수업 시간을 기준 단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는 상황에 맞춰 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데, 이것이 운영 단위입니다.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에서 2단위 범위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양 교과목의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세부 교과목별 기준 단위와 운영 단위는 각기 다릅니다. 표의 <국어> 과목은 기준 단위와 운영 단위가 8단위로 동일한 데 반해, <수학I>은 기준 단위는 5인 반면, 운영 단위는 4단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유형	세부교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1학년 (2021)		2학년 (2022)		3학년 (2023)		이수 단위	필수 단위
							1학 기	2학 기	1학 기	2학 기	1학 기	2학 기		
기 초		국 어	공통	국어	8	8	4	4					12	10
			일반	문학	5	4		4						
		수 학	공통	수학	8	8	4	4					16	10
			일반	수학I	5	4		4						
			일반	수학II	5	4			4					
			일반	수학II	5	4				4				

학교별로 세부 교과목의 운영 단위가 다르다면, 교과목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가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부여고 김용진 교사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 단위 대비 학교의 운영 단위가 너무 적다면, 해당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요 과목의 기준 단위가 5단위인데 운영 단위가 3단위라면, 내용의 충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통 과목 같은 보편적인 과목의 운영 단위는 기준 단위와 유사하게 운영하지만, 간혹 <경제수학> 같은 진로특화 과목은 기준 단위보다 적게 운영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

MORE TIP

김 교사는 “대학 역시 학생부를 살펴볼 때, 학생이 들었던 교과목 이수자 수 외에 운영 단위를 보면서 교과목의 내실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세특이나 이후 면접 등을 통한 추가 확인 과정이 있겠지만, 교과목의 운영 단위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합니다. 취재 이지원 리포터 judylee@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풀어놓으세요. 이메일(aj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